



예수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cok.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투스 평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사도행전10,34-37-43

화답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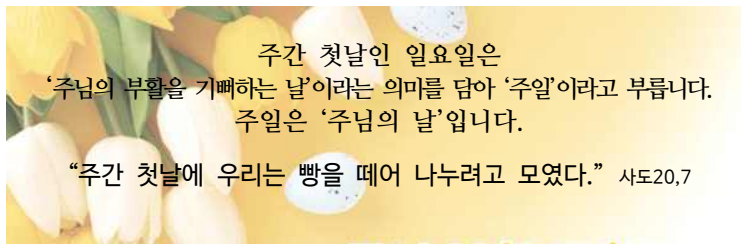


(후렴) 이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라.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간 첫날인 일요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담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였다.” 사도20,7

제2독서 | 콜로새서 3,1-4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복음 | 요한 20,1-9

성가 | 입당성가 [130] **예물준비** [1]
 영성체 [129] **파견성가** [특송]

미사봉헌

연미사	봉헌
임순남 엘리사벳	이시라
이중근 요셉	김승애 클라라
이중근 요셉	이영노 올리안나
이중근 요셉	익명
한정수 비오 기일	한안나, 데레사
박난성 요셉프란치스코, 박종성 영혼	양미숙 마리아
이상욱 소화데레사	이안나
낙태영혼	손명희 엘리사벳
연옥영혼	손명희 엘리사벳
김영수 베네딕도	한지영 세실리아
민병택 베드로	유정옥 유스티나
생미사	봉헌
세례, 견진, 첫영성체 교리반 모두 축하	대부 윤동진, 김승애
세례, 견진, 첫영성체 교리반 모두 축하	교리반 박진성, 전성봉
정소영 크레센시아 세례축하	대모 남지혜 크리스티나
Alexis 첫영성체, 민정, 동진, 동환, 형근, 주원, 건진, 진축하	정은진 안나
장동환 헨리코 세례	대부 정제임 사도요한 가족
장동환 헨리코 세례	강철순
이승권 미카엘 견진	대부 이기원 스테파노
김주원 요셉 견진	대부 장철순 스테파노
김효주 수녀, 이지훈 아녜스 교리봉사 감사	교리반 박진성, 전성봉
이태주 레오 견진축하, 장민우 봉사 감사	교리반 박진성, 전성봉
장혜윤 크리스티나 영육건강	정은진 안나
김현용 니콜라오	박신희 리나
정제임 사도요한 가족	강철순
박혜화 도미니카	장철순
김영덕 유스티나 생신축하	이경자 올리안나
이재필 스테파노 중환자실 의식회복	임영희 골롬바
성령기도회원들	성령기도회
안제니	안영옥 분다
이희원 이희경 영육건강	이수산나
노은 요셉 가정	이 아오스딩
양미숙 마리아 박수정 크리스티나 백수진 줄리아	양미숙 마리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에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전신자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 52,687단



▶세례와 견진, 첫영성체 축하

이번 부활성야 미사중에 총 29분이 세례성사, 견진성사, 첫영성체를 받았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례:** 강라이언(레오나르도) 강진영(릴리안) 김선준(미카엘) 김영주(가브리엘라) 권민석(베르나르도) 오정민(세례자요한) 정소영(크레센시아) 탁지수(마르첼라) ☀**첫영성체:** 안린

☀**견진:** 강혜일리(이사벨라) 김영희(클라라) 김요셉(요셉) 류유리(마태아) 민정(셀린) 박병심(바울리나) 박성찬(라파엘) 여동건(루카) 이인복(크리스티나) 유선욱(베로니카) 유형근(어거스틴) 윤석환(다윗) 이선아(유스티나) 이승권(미카엘) 이아림(수산나) 이태주(레오) 장동환(헨리코) 최미양(마르티나) 최민서(루치아) 허서령(아네스)

축하식: 오늘 미사직후, 교육관 3A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적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게 민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제 24회 나눔의 바자회

날짜: 5월 19일(주일)
추진위원장: 강호영 안드레아 516-521-3113
부위원장: 강경모 토마스 310-413-1653
후원금 접수: 사무실 또는 친교실 재무데스크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십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이주윤 카타리나 646-696-4680

▶여성 39차 꾸르실료 교육 수강자

4/18(목)~21(일) 뉴튼 분도수도원
그리스도안에서 이상, 순종, 사랑이 하나임을 체험하는 그분과의 귀한만남으로 가톨릭 신자로서 단 한번 주어지는 교육피정입니다.
신청: 4/9까지, 간사 김마리클레어 917-485-0530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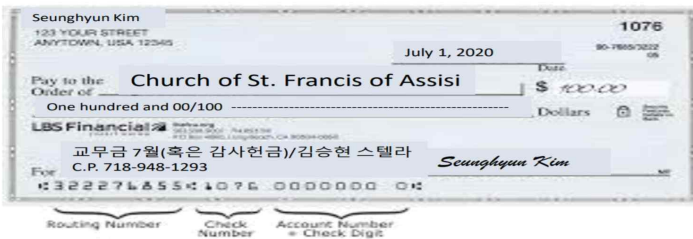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후보

- 2. 온라인 후보의 경우, 하단의 <우리들의 정성> 코너는 삭제되며, 성당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인쇄본 후보에만 게시됩니다.
- 3.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실 경우, 보내실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송금 후 수녀님 전화 : 347-834-5784 로 연락 바랍니다.
- 4. "기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한인공동체 교무금이 아니라, 미국본당을 위해 사용됩니다.

A. 체크로 보내실 경우 - 수취인은 꼭 써 주세요.
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청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대상: 20대, 30대, 40대 남녀. **기도, 봉사, 따뜻함**이 있는 곳! "기도 및 활동 나눔, 봉사, 본당 협조 등의 크고 작은 선교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희망의 모후Pr. 매주목 6pm
문의: 단장 정다경 마리아 347-514-5783
*우리즐거움의원천Pr. 매주일11am
문의: 단장 이기원 스테파노 929-208-5147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FLORA YANG)
무역 수입 IMPORT & 수출 EXPORT
657-337-5130
marketing@czlusa.com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 nycacu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 58th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더큰집
TEL. 212-564-8238

WONJO
New Wonjo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 1,2,3 FL, New York, NY
212-594-4963 전 스테파노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Tel: 347-840-2112
(32 St.- 33 St.) Fax: 212-631-8070
New York, NY 10001 hanbittour@gmail.co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광고주를 찾습니다.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3월 31일	백이백	강호영	김애희	김애희	김종선	한데레사 최사도요한 앙글라라 김실비아 조바실리오 이유스티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부활 달걀

해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이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달걀을 예쁘게 장식하고 선물로 주고받습니다. 달걀은 겉으로 죽은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태어날 생명이 깃들어 있기에, 생명과 다산(多産) 그리고 풍요(豐饒)를 의미합니다. 또한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도 상징합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달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 기쁘게 맞이하도록 축제의 분위기를 돋웁니다. 본래 부활 달걀은 승리의 색, 곧 '죽음을 이겨낸 새 삶'을 뜻하는 붉은 색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아 처음으로 달걀에 색을 칠한 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였습니다. 달걀을 주고받는 관습은 17세기 수도원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부터 사순 시기에 많은 그리스도인, 특히 수도자들은 보속의 정신으로 고기뿐 아니라 생선과 달걀도 먹지 않았습니다. 오직 빵과 마른 채소로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주님 부활 대축일이 되면, 오믈렛이나 반숙으로 익힌 달걀을 맛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한편, 이 계절에는 달걀이 귀해서 부유층만 먹을 수 있었는데, 신자들도 대축일의 아침에는 달걀 요리를 먹을 수 있었기에, 부활의 기쁨을 더 크게 나누고자 달걀을 주고받는 풍습이 생겨난 것입니다. 최근에는 파스카 양(羊)의 모양으로 만든 과자나 떡을 선물하기도 하는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활 달걀을 축복하는 기도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데, 이 기도문의 내용을 통해 부활 달걀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달걀을 축복하시어 당신 자녀들을 위한 유익한 음식이 되게 하시고, 저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에 즐거이 참여하게 하소서."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어둠을 물리치며 돌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나신 이 밤(날)에, 저희가 부활을 기뻐하며 정성스럽게 마련한 이 달걀에 축복하시고, 이 달걀을 나누는 이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더해 주소서."

부활 달걀과 함께 오늘 대축일의 기쁨을 풍성하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